

‘안전 · 건강’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전혀 없어

매스컴 · 과학자, 위험정보 강조보다 과학적 근거 통해 리스크 평가해야

■ 内田又左/ 일본농약공업회 안전대책위원장

최근 「유기농산물이기 때문에 안전, 건강에 좋다」라는 표현은 할 수 없다 라는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영국화학회지 「Chemistry World」 2004. 6월호에서 마리아 버커씨는 「유기농산물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관행재배에 비하여 안전하고 게다가 건강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의문」이며 또한 「작물도 식물병원균에 감염된다. 이러한 병원균이 생산하는 독소의 축적도 염려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독소의 일종인 후모니신을 조사하였는데, 유기농산물에서 축적량이 많고 리스크가 높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유기재배에서 오히려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 같았다.

가축분에 유래하는 살모넬라균 외에 대장균 O-157 등의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식물병원균이 생산하는 독소 외에 감염된 작물에는 알레르기성이 높아져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유기농산물이 반드시 건강에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논문도 있다.

영국의 「식품규격청(FSA, Food Standard Agency)」은 감염, 저지방식 등과 같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지도를 하고 있지만 「유기농산물이 보다 안전, 보다 건강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코멘트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FSA와 「광고규격국(ASA,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에 의하여 「유기농산물이 보다 안전, 보다 건강, 보다 영양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이밖에도 동일한 논의가 적지 않다.

또한 캐나다 암 협회는 「국민은 식품 중 잔류농약에는 실제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짓고 있다. 일본식품안전위원회도 「현행의 안전성평가 · 관리시스템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일본의 식품안전에 관한 농약 리스크에 대해 현시점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농약을 사용하는 관행재배도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유기재배가 보다 안전하다 또는 보다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농업인이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면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의 리스크는 허용할 수 있다. 즉 농업인 여러분이 농약라벨에 쓰여 있는 것을 잘 이해하여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실사 부주의라 할지라도 농약의 부정적 사용은 용서될 수 없다. 농업인이 정보나 주의사항을 공유하고, 단계적 개선을 통한 방제작업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신뢰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구축할 수 있으나 하나의 잘못으로 일순간에 붕괴된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신용을 얻기까지 많은 땀과 긴 세월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와 대책이 요망된다.

매스컴이나 과학자는 과학적 근거에 유의하여야 하고, 불필요하게 위험한 정보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관행재배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도 리스크로서 논의하여 주기 바란다.